

## 추석 명절 가정예배 순서

주후 2026. 9. 25(금) 아침

사회 | 담당자

목     도                      고                      를 추모하는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묵도하시며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   께

찬     송                      사철에 봄바람 불어 잇고 (새찬송가 559장)                      다   함   께

기     도                      가   족   중

성 경 봉 독                      요한복음 14:1-3                      가   족   중

추모의 말씀                      그날을 기다리며                      사   회   자

찬     송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새찬송가 492장)                      다   함   께

추   모   사                      고인을 추억하며 함께 감사의 마음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   족   중

기     도                      주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다   함   께

### 성경말씀 | 요한복음 14:1-3

- 1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 2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렸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 3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사랑하는 가족과의 이별은 우리의 마음에 큰 슬픔과 빈자리를 남깁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 말씀은 슬퍼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는데 어떻게 슬퍼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근심하지 말라”는 말씀은 애도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슬픔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말라는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낸 우리가 어떻게 근심과 슬픔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3가지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 1. 믿음(1절)

예수님은 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때는 평안한 때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곧 떠나실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큰 두려움과 불안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전능하시며 우리를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분이시기에 어떤 상황에서도 신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는 과정에서 많은 질문이 생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앞으로 어떻게 살아 가야 할까?” 그러나 우리가 모든 질문에 답을 얻어야만 평안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분을 온전히 신뢰할 때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 2. 소망(2절)

예수님은 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성도에게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잠시 나그네로 살아갈 뿐입니다. 우리에게는 반드시 돌아갈 본향이 있고 우리가 영원히 머무를 아버지 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막연한 기대가 아닙니다. “아마 좋은 곳이 있을 것이다”라는 희망사항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확실한 소망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이 잠시 잠깐뿐인 나그네 인생이요 우리에게 돌아갈 본향이 있다는 사실을 온전히 믿을 때 우리는 인생에서 겪게 되는 모든 슬픔도 아픔도 절망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보다 앞서 간 가족들을 영원한 처소에서 만나게 될 소망을 품고 오늘도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 3. 사랑(3절)

예수님께서 1절과 2절에서 믿음과 소망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 믿음과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 되시고 우리는 주님의 신부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날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에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것입니다. 그 기쁨의 날을 바라보며 우리도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마음 다해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